

# 韓國現代建築의 表現特性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박항섭\* / Park, Hang-Sup  
 윤도근\*\* / Yoon, Do-Keun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ow the present status of the expressions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under its pluralistic and equivocal situation. Non-residential buildings constructed since 1960 till 1997 have been analyzed focused on the rationality, romantic property, and Koreanity\* which are the expressional aspects, and its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such as the properties of the quasi-thematic approach, liminary subsistence, unexisting common ownership, mixed copy, and normative diversity have been grasped.

These results prove that the common features after Modernism such as the restoration of humanity, search for the architectural forms of plural meaning, the pursuit for the regionlity, are also applied for the expressions of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Also this study can be the attempt to clarify the identity of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and where it is now.

\* Koreanity : Here refers to the characteristics or peculiarities of Korean people

키워드 : 한국현대건축, 표현 특성, 위상정립, 현재성

## 1. 序論

한국현대건축은 정치적 혼란기와 사회적 변화기를 겪으면서 시간의 주기성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서구 건축사조의 다변화에 의해 현대에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회의 변화가 서구화와 동일어로 인식되었던 근대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현대건축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보다는 종속으로 당을 수도 있게 하며, 그로 인한 문화적 보편화는 건축문화의 진부한 관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시대의사에 비추어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추세는 현 사회에 개성의 존중과 여러 유행의 공존이라는 상황을 낳았다. 그것은 소비자의 생활패턴이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된 상품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화에 있어 디자인의 개발을 통한 끊임없는 학

신의 노력을 요구한다. 해외여행의 자유화, 정보매체의 발달, 수입된 수 많은 해외잡지 등의 영향 또한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어떤 양태로든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대중의 요구가 건축가의 형태사고를 넘어서는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한국현대건축의 다의적 상황은 문화적 보편성과 대중주의가 갖는 문화적 저속성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로 보아야 하며, 그것은 대립의 관점을 통한 건축디자인의 관성극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함목적성<sup>1)</sup>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현대건축 다의적 표현양태 분석을 통하여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을 고찰하여 한국 현대건축표현의 현재성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는 1960년~1997년까지 건축된 비 주거용 건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 현대건축 표현양태인 합리성, 낭만성, 한국성의 표현양태<sup>2)</sup> 분류 체계를 공식적으로 분석하여 한국현대건축의 표현

1)그 배후에는 건축과 인간, 사회라는 유기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바, 건축 디자인의 관성이 만들어 낸 왜곡된 산업사회 혹은 대중문화에 있어서 건축, 나아가서는 인간을 소비 및 소외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건축디자인 표현요소의 함목적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2)가시적으로 나타난 건축의 표현성을 나타낸 것으로 양태에 대한 사전적 의

정희원,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명예회장,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특성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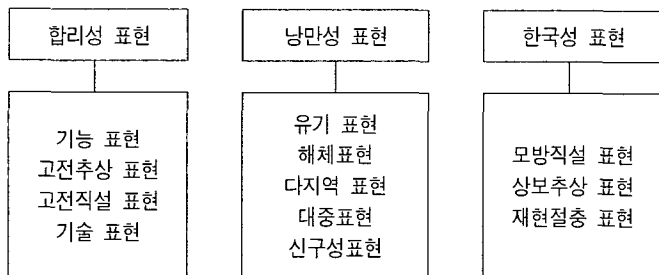
## 2. 韓國 現代建築의 表現特性 分析

한국현대사회는 모더니즘으로부터 일탈하려는 경향과 함께 지역주의의 관점이 고조된 시점에 있지만, 사회적 보수성이 완전히 타파되지 못한 상태로 시대와 역사의 원형적인 전통인식 방법들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현대건축이 이론의 확립과 기술적 진보, 세계적 조류의 동향을 위한 의욕적 시도를 하였으나 급변하는 건축조류와 사회상 때문에 미처 검증단계를 거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적 상황이다.

건축범위의 후진성과 지원행정의 완전하지 못한 시스템 구축은 설계작업과 건축적 사고 사이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서구의 합리주의 구조 위에서 한국적 정서를 담으려는 의지는 기능주의적 표현보다는 브루탈한 기념비적 매스를 갖는 권위적이고 영웅주의적 건축으로 변형되기도 하였고, 전통에서 연유되어온 토착성, 또는 건축가 개별적인 낭만성의 시도는 오히려 그 자체가 자생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1960년 이후 97년까지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개체적 표현양태 분석을 통하여 한국 현대건축의 표현양태를 시대적 건축상황과 함께 공식적으로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이는 한국 현대건축 표현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자로 작용한다.



## 3. 韓國 現代建築의 表現特性

### 3.1 擬制的 接近性

한국현대건축은 擬制<sup>3)</sup>에 의한 가설과 실험의 반복적 시행을 하고

미는 '상태, 양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3)擬制는 성질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범용성 같은 효과를 주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실종된 것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따위를 말한다. 의제라는 관점은 하나의 현상과 상황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그를 객관화시켜 해석,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을 규정하는 것에는 주관적이며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때로는 객관적이며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가상적인 이론적 해석체계가 필요하다. 즉 대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말한다.

있다. 이 의제는 외국사조에 대한 무비판적 접근과 민족원형에 대한 비가시적 접근에 의하여 갈등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한 갈등상황은 변증법적 진보의 상태가 아닌 병치상태를 초래하여 양극화까지 발전하였다.

한국건축은 60, 70년대의 기능주의적 경향을 추구한 국제주의 건축이 80년대에는 낭만적이고 자율적인 개체적 표현의 건축으로 변화한 이래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생활은 안정되었으나 더욱 가속화되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정립의 명제 앞에서 건축은 미학적이고 초 기능적인 경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현대건축의 표현을 의제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 공간적 측면에서는 본질과 비본질, 실재와 비실재에 대한 시도를 내부와 외부사이의 공간적 전이를 통한 새로운 건축적 경험이라는 것으로 시도하고 있다.

조형 형태적 측면에서는 가상되어진 현실적 상황에 대한 상호부조화를 통한 대비적 효과의 부각으로써 대중적으로도 쉽게 유머러스한 면을 보이며 접근하고 있다. 고전적인 절제와 기하학적 원리들은 극도로 추상화된 형식을 구사함으로써 현대 건축기술이 요구하는 보편성을 수용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공간과 형태를 시적 상태로 정제해 가면서 모든 형태적 연상이나 재현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한 추상격자속에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경직되고 기계적으로 느껴지는 평면구성과 극도로 단순화 되어있는 상자곽 형태, 노출 콘크리트라는 무기적 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공허감, 상실감을 연출하여 공간 그 자체가 표현의 대상이며 인간의 삶을 건축의 제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도시건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움, 없음, 나눔, 침묵의 논리로 내부 공간의 충실과 이중적 공간의 자율화 시도, 민족원형에로의 현대적 접근, 소비지향적 사회에 대한 자각, 건축적 자아실현이라는 것에는 충분히 성공적이나 도시가로적 측면 즉, 공허한 벽면의 연속과 배타적 양피감은 소외에 대한 자족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4계절 변화지 않은 인공적 실체의 시각화 작업을 하나의 틀 속의 건축적 이상을 표현하려는 태도마저 보인다. 내부의 공간과 외부의 형태가 분리되어 상호 부조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대비적으로 부각됨으로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내부공간의 변화에 의한 외부형태의 전이는 형태와 기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확대되는 조형 이미지와 축소되는 기능효과간의 대비 경향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능적 건축에서 형태 우선의 건축으로 전이되고 있는 현상이라 해석된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다기능을 중시하던 다목적 공간의 성격이 점차 독특한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 분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 문화적인 개별성의 확대와도 그 추이를 같이하는 것으로 건축기능의 분해와 재조합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화된 각 기능간의 매개수단이 계단, 중정, 브리지 등을 이용해

내부공간의 다양한 이미지와 흔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사회, 문화적인 개별성의 확대와 그 추이에 대한 접근으로 다기 능의 다목적 공간이 분화되어 독특한 특성을 가진 개별적 공간과 그 개별 공간들의 중첩이나 분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표 1> 의제적 접근성 표현양태별 특성 및 의식

분류	표현양태	표현특성	표현의식
의제적 접근성	기능표현	· 건축물 공간의 모듈에 근거한 멀리언간격과 커튼 월의 사용. · 기능성, 효율성, 디테일미.	· 간결한 윤곽 속에서 정제된 표현. · 기하학적 원리를 극도로 추상화.
	신구성표현 (미니멀리즘적 표현)	· 공간 인식의 우위 속에 형태표현이 부가되는 양상 · 내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이 공간 표현의 매개체로 의도됨. · 단순화된 상자적 형태와 무기적 재료(노출콘크리트)사용에 의해 그 자체가 표현의 대상이 됨.	· 공간의 측면에서 본질과 비본질, 실재와 비실재에 대한 접근. · 비율의 논리로 이중적 공간의 자율화 시도. · 공허한 벽의 연속과 배터적 양괴감. · 인공적 실체의 시각화 작업.
	상보추상 (외연표현)	· 한국인의 심상, 정서속에 내재된 한국성을 표현	· 고전기하학적 원리를 극도로 추상화. · 구상에서 추상으로의 변환. · 구상과 추상이 혼재된 양태.
	상보추상 (내재표현)	· 한국 전통건축에서 보여주는 공간의 영역과 내향적, 은둔의 공간을 현대적 도시맥락에서 다양하게 수용. ·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환과 혼재된 양태.	· 내부와 외부사이의 공간적 전이, 계단, 중정, 브리지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간의 다양한 이미지와 흔적을 시도.

이상과 같은 표현특성은 한국현대건축의 양태에 있어서 합리성표현의 기능표현 중 60, 70년대의 초기 합리성 건축에서 나타나며, 낭만성 표현의 신구성표현 중 미니멀리즘적 표현과 한국성 표현의 상보추상표현 중 외연표현과 내재표현에 표출되고 있다.

### 3.2 限界의 現存性

한국현대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고금의 모든 건축이 그 탐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어느 한 시대나 한 지역의 건축만을 대상으로 절대시 할 수 없다.

현재 한국건축이 참고할 수 있는 건축적 유산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서양건축과 동양건축이 된다. 전통건축은 주로 한국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서양의 현대건축은 합리성과 낭만성의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탐구는 단순히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것을 현재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리와 가치를 오늘날의 조건들에 맞는 것으로 변형, 추상화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술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존재형식에 대해서도 근대의 성격과 개념에 대한 논의는 계속 개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기술과 재료 및 구조 방식 등의 가능성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근대건축과 고전주의 전통은 '통일 속의 변화'라는 원칙과 마찬가지로 설계의 기본원리로서 유지된다. 통일이란 일정한 정도의 절제와 제한을 의미하며 통일이란 대상의 범위도 도시와 자연의 환경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의 의미론에 대한 집착 이후에 소위 해체<sup>4)</sup> 경향의 작품들은 이러한 통일된 인간세계의 조화라는 관념에 회의하면서 더 근원적인 생명력에 다가가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구성주의<sup>5)</sup>에 대한 관심은 그 중 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과 아이겐만<sup>6)</sup> 유의 지적 극단화에서 볼 수 있는 형식주의보다는 감성과 직관의 경향이 강한 건축가들이 더 보편적인 감동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구의 탈 근대건축은 여러 갈래의 해석과 비판이 있으나 역사에 대한 참조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을 언어로 유추한다는 점에 주요한 특징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일부 건축가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고전 건축 모티프의 인용과 조작을 통해 표현되었고, 이때 자주 드러나는 형식이 대칭적인 구성과 중심성의 회복이었다.

그러한 풍조의 사상적 배경과의 연결은 한국현대건축에서는 자주 대칭성의 형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상업적인 건축의 표피구성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 근대기획의 과잉 달성 때문에 지금 사회적 인간적 고통과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합리성, 비판성, 성숙성의 결핍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는 대중사회, 문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방식과는 다른 것일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와 근대성의 문제 탈근대 논의의 무비판성, 현실추수주의, 표피문화의 논리와 경박성, 이성판단의 극단주의와 주제 해체라 할 수 있다.<sup>7)</sup>

지역성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건축적 환경에 인간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소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장소성의 개념은 과거 공간예술로서의 접근방식이 주지 못했던 실존의 의미를 건축에 부여한다.

장소성의 개념은 특히 공간을 중시하였던 근대건축이 극히 추상화되고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을 산출함으로써 인간적 의미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기 시작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성이나 지역성의 탐구는 일차적으로 생활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조형감각과 세계관 및 자세를 현대의 기술과 재료로서 반영해 나가는 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과거 건축의 정신과 구성원리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선택될 것이며 기존 건축의 형태자체에 대한 무리

4) 해체주의(Deconstruction) 데리다의 이론과 결합한 특히 모방과 기호에 대한 비판.

5) 구성주의(Constructivism)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에서 일어난 혁신적인 예술운동. C.마레비치에 의해서 시작된 슈프래미티즘을 기반으로 하면서 기술시대의 제조조건에 적합한 미적 문화를 전개시키려고 한 것. 회화, 조각에서 건축이나 디자인에도 미적은 종합적인 운동이다.

6) Peter Eisenman(1932 ) 건축을 의미화의 체계라 보고 건축에 기호학 이론을 적용함. 이론으로 즉, 건축형태는 언제나 건축의 내부사건을 통하여 외부문맥과 연관되므로 건축은 의미론(Semantics)적 선을 따라 전개되고 또한 문맥 해결의 체계로서 외부로 나타난 기호들의 상호관련의 개념인 구성론(Synthesis)적인 면이 존재할 수 있다.

7) 도성일, 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시뮬레이션 미학, 또는 조립문학의 문체와 전망, p.209

한 집착은 자칫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건축의 역사를 참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연상의 방법을 통해 상징성을 얻고 그러한 공유기억을 소통시키는 것이다.

그 지역의 풍토나 친숙한 스케일 및 공간 이용방식 등이 참조체계가 되며 이것은 시간적 차원에서의 역사주의에 대비되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시도라 볼 수 있다.

한 지역의 건축적 전통과 계속 발전해 가는 현대의 건설기술 및 건축의 미학적 가능성 등을 통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상업화 추세 속에서 강요되는 건축의 상품화에 저항한다는 케네스 프램프톤(Kenneth Frampton :1930-)의 비판적 지역주의<sup>8)</sup>는 하나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한계적 현존성 표현양태별 특성 및 의식

분류	표현양태	표현특성	표현의식
한계적 현존성	기능표현	· 단순립법체, 디자인의 연속성 등 일한 기능의 수평적, 수직적 공간의 반복.	· 정보의 발달과 함께 무비판적 서구문화수용에 의한 지역성, 장소성 결핍.
	고전적 직설표현	· 고전건축의 조형의식 및 장식 요소를 그대로 인용. · 위계질서와 대칭성, 투시도법적 입면 구성과 비례체계 답습. · 상업건축의 표피적 낭만성.	· 우리사회와 근대성의 문제, 탈대 논의의 무비판성이 가져온 현실. · 정보의 발달과 함께 무비판적 서구문화수용에 의한 지역성, 장소성 결핍.
	기술표현	· 기술성의 기초적 표현. · 기계미학적 이미지 표현.	· 기술력 부족에 의해 표피적으로 기술성 표현.
		· 통합적 구축을 위한 집단의 시스템 및 시공성을 도입. · 기술 구조적 성능의 진보에 따른 능동적 공간형성 표현.	· 현재의 성과를 인정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예시.
	모방직설 표현	· 전통적 건축양식을 그대로 재현.	· 가치척도 면에서 내적 질서의 발전 논리가 부족.
상보추상 (내재표현)	· 한국전통건축의 요소를 추상화. · 전통 사물을 은유적으로 표현.	· 전통을 해석 표현함에 있어 외형 해석 단계.	

이상과 같은 표현특성은 한국 현대건축의 양태에 있어서 합리성 표현의 기능표현, 고전적 직설표현과 기술표현 그리고 한국성표현의 모방직설표현, 상보추상의 외연표현에 표출되고 있다.

### 3.3 非實體的 共有性

근대성의 표현중 국제주의 건축의 표현은 60년대 이후 한국현대 건축의 제1세대들에 의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표현의 방법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나,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행사 및 세계 정보의 공유, 국민 문화의식의 고양, 그리고 생활의 질 향상에 따른 영향으로 실제 공유하지 않은 수 많은 세계 건축의 표현언어가 일정한 여과장치 없이 공유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표현언어의 상황은 원전에 대한 시각적 1차 변형만이 이루어져서 나타난 결과이다. 시간적, 장소적, 공간적, 심미적, 재료적인 변형에 의한 자기화로의 변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각적 혼

란상태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가로 건축에 표현된 현상은 자의적 형상으로 인식되어 건축 자체 전시장과도 같은 현상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식 건물이라는 축약된 범어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구분해 내리는 대상을 규명해 내기 위해선 지속적 형태의 건축행위에 쓰여지는 상용어가 설정되어야 한다.

비실체적 공유성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인식자체가 선명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의 발단이 실천을 지향하지 못하고 부정적 가치로 일관되어 왔으며, 소위 실천적 태도를 따르던 건축의 실행자들은 규범으로 규범의 대상을 서구식 건축에서 가져버린 데 기인한다.

순수 건축이론의 실천으로 민족성이나 개체의 자립성을 우선하여 세계건축의 상황에 맞춰 자신의 건축을 내놓고 건축의 창의성에 대하여 깊이 빠져 있었던 시대의 한국건축은 순수주의 개념에 입각한 건축론의 방식으로 다양한 관심보다는 근대성을 바탕으로 건축을 피력하려 했다.

이후의 건축은 확대된 영역에서 서구의 건축논의와 쟁점과 그 편린들을 수용하기에 이르렀고 건축론의 방식이나, 미학체계 개념을 병용화하였으며, 순수체계 논리나 형태이론보다는 민족성이나 지역성, 정신의 우월을 기착시키려는 건축논의 개념으로 한국건축에 이른바 회귀의식을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뚜렷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체계와 의식을 지닌 서구의 건축에 비해 비체계성을 지닌 것이다. 건축을 통한 행위개념 속에서 의사를 타진하여 그것이 한국의 무엇과 어울린다는 식의 논의 전개는 그 목적과 과정의 전체 구성이 하나의 도식을 연출하려 하는 회귀성 내지는 전제성을 띤 특성을 지니고 있다.

건축에서 '대중적 기반의 유리'라는 것은 이론 실천의 면에서 대중에 대한 계몽적 위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비실체적 공유성 표현양태별 특성 및 의식

분류	표현양태	표현특성	표현의식
비실체적 공유성	기능표현	· 규범의 대상을 서구건축으로 함.	· 실제 공유하지 않는 세계 건축의 표현언어가 여과 없이 공유되는 현실
	고전적 추상표현	· 서양 고전건축의 추상적 변형과 형상적, 재현적 형태를 위한 추상. · 표층적 낭만성에 의한 절충적 형태. · 서구 포스트모던의 1차적 변형에 의한 피상적 모방과 조형원리	· 규범의 대상을 서구 건축으로 삼음. · 시간적, 장소적, 공간적, 심미적 이 자기화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혼란

이상과 같은 비실체적 공유성이라는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은 한국현대건축의 양태에 있어서 합리성표현의 기능표현, 고전 추상표현과 낭만성표현의 대중 표현에 표출된다.

### 3.4 混成的 模倣性

현대건축의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개념중의 하나가 '인용'이라는 개념이다. 인용이란 흔히들 자신의 주장의

8)반미학, 할포스터 편, 윤호병 외 옮김, 현대미술사, 1993, pp.45-65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이의 의견의 일부를 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이 현대건축의 표현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된 것은 현대의 사상적 상황이 전체보다 부분이 우선하고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오히려 부분간의 이질적인 조합이 앞서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

즉, 사전에 주어진 전체적인 의미로부터 벗어나 후에 부가되는 부분간의 병치상태, 무언가의 변형, 축소, 과장, 왜곡, 절단이 우선한다는 사고의 축을 반영하면서 기억을 상대화하고 역사적인 시간을 동일시함으로써 역사를 비역사화하는 방법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은 전체화와는 다른 원리로서 본래의 텍스트가 갖는 기호표현과 기호내용을 애매하게 만듦으로써 근대적인 작품 이외의 것을 추구하는 수법이다.

따라서 인용은 역사와 양식, 기술이나 사회라는 이제까지의 건축적 문맥을 해체하고 근대건축의 문맥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반드시 선행하는 것을 변형하거나 역사적 건축물이나 근대건축을 참조하는 수법을 수반하게 된다.

인용이란 시대적·양식적 아이덴티티가 결여된 단편화된 세계, 안정된 이념이나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세계의 산물이다.

최근 들어 지어진 한국현대건축물들의 표현이 다양해지고 변화감이 있는 것은 작품을 맡은 건축가들이 단순한 내부공간의 기능적인 해결에서 벗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것은 복잡한 형태를 가능케 한 건축시공기술과 재료의 발전, 사회경제의 발전 등의 이유와 함께 다양하게 쏟아지는 국내·외의 건축정보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양함은 획일적인 근대건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방면의 건축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따옴'으로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인용을 통하여 자기 작품을 형성해 나가는 건축수법의 경향은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구미를 비롯한 전 문명세계의 한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는 극단적으로 나선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수적인 작가들도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정보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석해야 할 사항은 다른 시대 또는 다른 건축어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어떻게 자기화시킬 것인가, 즉 어떻게 인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혼성모방기법을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적 원리로 정당화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장 보드리야르의 시물레이션 이론이다. 보드리야르의 시물레이션 미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혼성모방은 패러디<sup>9)</sup>와 거의 구분되지 않거나 몽타주 혹은 콜라주 기법의 한 변종으로 간주되었다.

시물레이션 이론의 등장과 함께 혼성모방은 패러디와 분명히 구분되는 기법으로서의 이론적 지위를 획득한다. 패러디가 기존의 어떤 텍스트를 흉내내기의 방식으로 비틀어 <비판적 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기법인 반면, 혼성모방은 기존의 <순수한>반사, 비판성

9) 패러디는 스타일상의 고유성을 이용하고 그들의 특이성과 기벽성을 이용함으로써 원본을 조롱하는 모방을 만들어낸다.

을 갖지 않는 순수한 흉내내기, 순수한 복사/복제의 기법이다.

패러디는 대상을 모방하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변형된 것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대상과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혼성모방은 비판/풍자의 의도를 담지 않는 <비의도적 패러디>이기 때문에 자기와 대상 사이에 비판적 거리를 갖지 않는다. 혼성모방은 전통적 의미의 모방도 인용/차용/인유도 아닌 순수한 <복사>이며, 유리거울이 이미지를 순수히 되돌리듯 혼성모방은 모방의 대상을 자기 내부에 동화하여 감추지 않고 흉내의 형태로 되받아 반사한다. 이 점에서 혼성모방은 순수모방, 순수복제, 순수 시물레이션이다.

대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부'와 '깊이'를 가져야 하지만 순수 시물레이션으로서의 혼성모방은 '속이 빈 패러디'여서 그 자체의 어떤 내성도 깊이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내부/외부, 심층/표층의 구분이 성립하지 않는 순수 표피의 세계이다. 속, 내부, 깊이, 의미, 해석, 무의식, 심층, 에로스, 갈등, 모순, 실재, 진리, 재현 등의 범주는 시물레이션으로서의 혼성모방과는 관계없다.

그것은 모든 내부, 속, 깊이가 표층으로 올라와 투명해진 상태, 속이 표피로 떠올라 표피/심부의 구분을 무화시킨 순수 외설의 상태이며 거기에는 어떤 에로스도, 급기와 위반도, 무의식도 없다.

인용이라는 과제도 발전 논리를 가진 내적 질서 속에서 전개되어 왔는가, 아니면 그저 베끼는데 급급했는가로 그 가치의 척도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력과 그 원동력이 되는 상상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주어진 조건과 경험치들이 상호 조합하여 새로운 발전 논리를 생산해 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경험치가 없이는 새로운 발전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우리의 건축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용의 표현들에 대해 모두들 가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가치 있는 인용 부호를 찾아내기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근대건축의 발전논리로 하이테크 건축은 그 타당성을 상당히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건축을 현대의 건축기술로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론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표현되는 형태 또한 금속성의 경쾌한 소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건축에서도 이러한 하이테크의 사용 또는 인용을 볼 수 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만나는 완충공간에 사용되는 아트리움이나 부차 온실형에서의 철골조 투명천장이다. 그러나 하이테크의 기본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장식적 요소로서의 부분적 인용이라는 점이다.

60, 70년대에 일어났던 전통논쟁은 결론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인용의 법칙에 있어서 외형적 양식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외형적 전통의 변형에서 내재적 전통의 변형으로의 진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내재적 전통의 변형은 민족원형의 표현이라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현대적 공간에 융해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표 4> 혼성적 모방성 표현양태별 특성 및 의식

분류	표현양태	표현특성	표현의식
혼성적 모방성	다지역적 표현	· 제3세계의 건축요소(재료, 형태)를 차용. · 이질적인 형태적 상징성에 한국적 정서가 혼재.	· 지역을 상대화하고 역사적인 시간을 동일시하여 역사를 비역사화하는 방법. · 부가되는 부분간의 조합, 변형, 축소, 과장, 왜곡, 절단이 우선하는 사고.
	대중적 표현	· 전통적인 지역적요소와 장식이 의한 맥락주의(Contextualism) · 복합성, 대립성, 상징성. · 기능적 합리성과 서정적 표현에 의한 내용과 형식이 분리된 형태. · 반복성, 복제적 표현기법. · 주변환경에의 적합성과 기본맥락과의 동질성. · 부가되는 부분간의 조합, 변형, 축소, 과장, 왜곡, 절단이 우선한다는 사고의 축을 반영. · 내부의 기능성을 일탈한 표현.	· 전체보다 부분이 우선하고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부분간의 이질적 조합이 앞서는 상황. · 시뮬레이션이론(장 보드리야르) · 내부/외부, 심층/표층의 구분이 성립하지 않는 순수표피의 세계. · 현실 그 자체가 자신의 이미지와 구별 될 수 없고 현실구조가 그 구조와 분리될 수 없는 미학의 주입. · 디지털의 세계가 은유와 환유의 세계를 흡수
	재현적 절충표현	· 한국전통건축의 요소를 서구고전 건축원리에 적용	· 근대적 도시맥락에 순응하면 전통건축의 일부를 소극적으로 차용. · 서구고전건축의 원리와 한국전통건축원리가 혼재.

이상과 같은 표현특성은 한국현대건축의 양태에 있어서 낭만성 표현의 다지역적 표현, 대중적 표현 그리고 한국성 표현의 재현적 절충표현에 표출되고 있다.

### 3.5 規律的 多樣性

근대로부터의 탈피의 시도가 몇 개의 사회적, 사상적인 테마로서 표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양화다. 그것은 근대가 성숙한 일관성, 단일성, 통일성 등의 개념을 넘은 혹은 그 반성으로서 사회에 표출된 근대 이후의 현재를 상징하는 말이다.

생산이 제일의적으로 위치를 점한 근대는 사회전체로서의 목표나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의 것으로 하는 것을 지표로 하고 있었다. 시대가 포스트모던을 표방하기 시작부터는 그러한 생산에 소비된 에너지는 다방면에 방입되었다. 이러한 사태- 팽창하여 확산하는 다양성-에 전망이 없는 혼돈을 느끼면서 건축은 그 양식에 어떤 종의 윤곽을 예지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포스트모던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움직임은 문학에서 연극, 그리고 경제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상황을 구하여 세계로 영역을 확대하여왔다. 특히 건축에 있어서 포스트모던의 동향은 가장 중심적으로 역할을 짊어지고 왔다.

그것은 건축의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근대가 부정하며 혹은 전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역사주의나 양식에 관하여 검토가 가하여져서 표현으로서의 형태론이나 심볼리즘이 평가되어 신탁스나 세만틱스라는 언어학의 방법이 선택되는 등 다양화의 상황이 만들어져 온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새로운 개인형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그

것은 부동의 「일관성」이 자기존재를 증명한 여태의 「개인주의」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연한 개인주의의 태두이다.

이 현상은 평등한 집단주의에도 반영되어 그것은 생산을 기반으로 한 사회구조에서 소비적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상황으로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실은 더욱더 넓은 다양화를 전진시키면서 착실하게 개성에 관하는 새로운 유연한 사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건축의 형태조작 즉, 표현조작에 있어서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규칙에 저항함으로써 그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에 반발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규칙을 준수하거나 구성하는 필요 그것 자체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의식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전자는 지성의 작용이 강하게 존재함에 반해, 후자는 전체적인 존재감이 있다. 후자에 나타나는 규칙준수 필요의 결핍은 사각의 정의나 목적표현으로부터의 퇴행을 구성하는 일종의 의사표현이다. 그것은 반발이나 저항보다 더 자기 충족적이다.

비례, 개구부의 간격, 색채, 벽의 위치 등에서 기존에서 이탈하여 다양화, 장식화 되는 경향이 있다.

기계의 개념에는 주요부분과 종속된 부분과의 위계체계가 있어 그것이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간의 용기로써 건축을 생각할 때 풍력이나 중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위계체계의 제일단계를 형성한다.

중력을 지탱하는 부분과 외부와의 경계부분이 분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구조의 해석은 건축가와 그가 몸담고 있는 인간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벽이라 부르는 요소는 오히려 층(layer)이라 불려야 할 얇은 벽으로 치환되는 표현특성도 있다.

한국현대건축에 있어서 규율적 장식화는 전체적 시점이나 위치와는 무관계하게 즉, 부분으로서의 장식이 전체상을 가질 수 없는 채로 사회에 표출되어 그리고 언젠가는 전체를 만든다고 하는 역설을 표현하고 있다. 즉 분단된 미의식(감각)에 의한 전체화(형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표현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해져서 구조벽, 내부공간의 오브제 등을 다양화, 장식화하려는 한국현대건축 표현특성으로 규정되며 낭만성표현의 유기표현, 신구성표현, 해체표현에서 표출되고 있다.

## 4. 結論

한국 현대건축의 표현양태는 합리성, 낭만성, 한국성을 주축으로, 합리성표현은 기능표현, 고전직설표현, 고전추상표현, 기술표현으로, 낭만성표현은 유기표현, 해체표현, 다지역표현, 대중표현, 신구성표현으로, 한국성표현은 모방직설표현, 상보추상표현, 재현추상표현 등

<표 5> 규율적 다양성 표현양태별 특성 및 의식

분류	표현양태	표현특성	표현의식
규율적 다양성	유기표현	· 자연을 본보기로 낭만적, 환상적 경향. · 자유로운 형태어휘 구사. · 작가의 작위적 관념에 의한 형태 표출. · 형식적으로는 유기주의를 공간적으로는 다양성 표방.	· 규칙에서의 자유로움. · 규칙 자체에 대한 무관심(자기 충족적) · 개인의 정신적 자립과 인격이 심리적으로 탐구됨. · 개인의 서정적 요소를 존중.
	해체표현	· 기존의 모든 법칙을 의심하고 근본부터 해체하여 현대의 비정형세계를 반영. · 의도적 분절에 의한 골라주 효과. · 초현실적인 형태, 재료, 기능의 병치를 통한 충격효과.	· 근대건축비판에서 탈 근대건축의 레벨을 달리하여 형식, 장식, 내용, 표현의 다양성 표방. · 개인의 정신적 자립과 인격이 심리적으로 탐구됨.
	신구성표현	· 프로그램, 형태, 기능의 중첩에 의한 다원화된 현대성의 반영. · 순수기하학적 도형의 3차원적 중첩. · 이질적 재료와 매스의 조합, 분절에 의한 시각적 흡입력.	· 비례, 개구부의 간격, 색채, 벽의 위치 등 기존에서 이탈하여 다양성과 장식화하려는 경향. · 규칙에서 자유로움 기존규칙에 대한 자의식, 지성의 작용에 의한 존재감.

12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5가지의 표현특성으로 종합된다.

첫째, 의제적 접근성은 합리성의 기능표현과 낭만성의 신구성표현의 미니멀리즘 표현경향, 그리고 한국성의 상보추상표현 중 내재적 표현양태에서 공통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표현특성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직되고 기계적으로 느껴지는 평면구성과 극도로 단순화된 박스 형태, 무기적 재료인 노출 콘크리트로 인한 경직감 등이 연출되어 공간 그 자체가 표현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적 사고의 건축적 해석이 동양적 사고의 해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이는 하나의 과도기적 표현특성으로 해석된다.

둘째, 한계적 현존성은 합리성의 고전적 직설표현과 기술표현, 그리고 한국성의 모방직설표현양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다. 지역의 풍토나 스케일 및 공간이용방식 등이 참조체계가 되어 시간적 차원에서의 역사주의와 대비되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시도인 것이다. 즉, 세계적인 보편문화로부터의 다양한 시도라는 표현특성의 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셋째, 비실체적 공유성은 합리성의 고전적 추상표현과 기능표현에서 보이는 특성이다. 규범과 질서의 고정개념으로부터 이탈되고 지향된 불완전한 해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능화시키려는 과정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 공유하지 않은 세계건축의 표현언어가 여과없이 공유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자기화로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표현의식을 갖는다.

넷째, 혼성적 모방성은 낭만성의 다지역적 표현, 그리고 한국성의 재현적 절충표현양태에서 보이는 특성이다. 표현의식에 있어서는 현대의 사상이 전체보다는 부분이 우선하고,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부분간의 이질적인 조합이 앞서고 있음을 나타내는 건축표현이다.

다섯째, 규율적 다양성은 낭만성의 유기표현과 신구성표현, 그리고 해체표현양태로부터 표출된 표현특성이다. 근대건축에서 부정된 장식과 다양한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과정적 특성을 의미

하며, 개구부의 간격, 색채, 벽의 위치 등 기존에서 이탈하여 다양화, 장식화하려는 경향으로, 규칙에서의 자유로움과 자기충족적 비판심성이라는 표현의식을 따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더니즘 건축이후의 공통적인 특징인 인간성 회복과 다원적 의미의 건축형태 추구, 지역성 모색 등이 한국 현대 건축표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논증하였으며, 한국현대건축의 위상 정립과 현재성을 밝히려는 시도로서 일조하고자함을 기대하며 표현 특성 추출에 관한 이 연구의 이룬에 대하여는 앞으로 객관적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 연구는 그러한 작업의 첫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Dine Ghirard. Architecture After Modernism,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1996
2. Kate Nesbitt, Editor.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6
3. James Steele. Architecture Today, Phaidon Press Ltd, 1997
4. Panos Koulermos. 20th Century European Rationausu, Academy Editions, 1995
5. Edited by Andreas. Catherine Cooke & Andrew Benjamin. De construction, Rizzoli 1989
6.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Thames & Hudson, 1980
7. 역사문제 연구소 편. 한국의 존재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1997
8. 최경호, 맛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 1977
9. 김용문, 원형의 유혹, 도서출판 한길사, 1995
10. 도정인,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1994
11. W. 타타르키비츠, 이용대 역. 여섯가지개념의 역사,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1994
12. 한영우, 우리역사와의 대화, 을유문화사, 1991
13. 마담 샬롬의, 임현규 역.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터모더니즘, 인간사랑, 1991
14. M. Lampugnani, 윤재희, 지연순 역. 현대건축론, 세진사, 1987
15. 양동양, 현대건축론, 기문당, 1995
16. M. 칼리니스쿠, 이영욱의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가과 연어, 1996
17.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 1876 1990, 기문당, 1994
18. 박 흥, 한국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3
19. 김경수, 한국현대건축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20. 황두진, 근대 및 현대건축에 나타난 과학적 합리주의의 형태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8
21. 박항섭, 20세기의 건축조류와 현대건축의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0
22. 윤도근, 건축의 표현문제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79
23. 정인국, 현대건축론, 치정문화사, 1970
24. 菊池誠. Trans Architecture. INAX, 1996
25. 浜田邦裕. Unbuilt 理論. INAX, 1995

<접수 : 1998. 10. 30>